현대차·기아, EV 보다 하이브리드…미국서 인기 급증

10월 판매 14만 6000여대···EV 세액공제 종료에 판매 급감에도 선전 팰리세이드ㆍ니로 등 하이브리드 3만 1102대 판매…전년비 43.5%↑

현대차·기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에 따른 보조금 종료와 관세 압박 속에서도 하이브 리드 라인업의 선전에 힘입어 작년 수준의 판매 실 적을 이어갔다.

전기차(EV) 세액공제 종료로 EV 판매가 급감 했으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의 하이 브리드차(HEV)가 굳건한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충격을 완화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3일 10월 현대차(제네시스 포 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4만 6137대로 전 년 동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 줄어든 7만 7135대를 판매했으며 기아는 6만 9002대로 0.1% 늘리며 역대 10월 기 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1.7% 증가 한 7017대를 기록했다.

9월 말로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 러) 지원이 종료되면서 EV 수요가 급격히 꺾였 다. 10월 현대차·기아 EV 판매량은 3834대로 전 년 동월 대비 61.6% 감소했다. 현대차는 2503대 (-58.5%), 기아는 1331대(-66.4%)를 판매했 다. 대표 전기차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 5는 1642대가 팔리며 전년 동월 대비 63.5% 감소했고 기아 EV6는 508대로 70.7% 줄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큰 폭으로 늘었다. 현대차·기아는 10월 한 달간 하이브리드 모델 3

만 1102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43.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1만 7773대 (36.9%), 기아는 1만 3329대(53.2%)가 각각 늘

현대차에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2470

대 판매되며 출시 효과를 확인했고 엘란트라 하이 브리드(2440대·86.7%↑), 싼타페 하이브리드 (4472대·36.3% ↑)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아에서는 니로 하이브리드(2541대·101.3% ↑), 스포티지 하이브리드(6846대·87.2%↑)가 실적을 이끌었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를 합산한 친환경차 현지 판매량은 3만 4938대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3% 늘어 미국 시장 내 친환 경차 경쟁력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차종별로 현대차 투싼이 2만 3036대로 최다 판 매 모델에 올랐고 싼타페(1만 1800대), 아반떼 (1만 224대)가 뒤를 이었다. 기아는 스포티지가 1만 6057대 팔리며 강세를 이어갔고 K4 (9955대), 텔루라이드(80571대) 순이었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대 차·기아는 하이브리드 중심 전략과 현지 생산 확대 를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차, 싱가포르와 '저탄소 수소 기술 협력'

박재하(왼쪽) 현대차그룹 글로벌수소비즈 니스사업부 상무와 클라란스 추아 싱가포

르 경제개발청 한국·일본 총괄 이사가 지난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K-테크 쇼케이스' 행사장에서 열 린 '수소 중심 저탄소 기술 개발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 3분기만에 40만대 돌파

올해 최다 기록 전망…지난해 동기 대비 31% 증가

올해 국내 친환경차 판매가 3분기 만에 40만대 를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전 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모두 호조세를 보이 며 국내 완성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 코리아·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 경차 판매량은 41만 783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HEV), 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을 포함한다. 국 내 완성차 업계가 3분기 만에 친환경차 판매 4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말까지 지 난해 전체 판매량(45만 7321대)을 뛰어넘어 처음 으로 50만대 돌파가 유력시된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비중이 빠르게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완성차의 전체 내 수 판매(103만 6912대) 가운데 친환경차가 차 지한 비율은 40%를 넘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

차종별로는 전기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같 은 기간 5개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10만 33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49%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판매량(9만 2428대)을 앞질러 3분기 만에 10만대

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다양한 신차 출시와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 보 조금 안정화 등이 전기차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하이브리드차 역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 다. 올해 1~3분기 판매량은 30만 9529대로 전년 대비 25% 늘었으며 3분기 만에 30만대 판매를 돌 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친환경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해당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의 경우 올해 9월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이 2만 6930대 판매돼 가솔린 모델(1만 8005대)을 크게 앞질렀다. 기아 카니발도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 모 델 판매량이 3만 5945대로 가솔린 모델(2만 6524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AI 첨단안전장치 활용…소포 배달 소형 화물차 안전 운행 돕는다

TS·우체국물류지원단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30일 우체국물 류지원단과 소포 배달 소형 화물차의 안전 운행과 교통안전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업무 수행 차량 인 소형 화물차에 인공지능(AI) 첨단안전장치를 시범 설치해 실시간 사고 위험 점검을 통한 교통사 고 예방에 나선다.

AI 첨단안전장치는 차량에 부착된 AI 기반 카 메라가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해 사고 위험 요인 발생 시 실시간 경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TS는 AI 첨단안전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으로 소 형 화물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안 전장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체국물류지원 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국내 화물차의 교통안전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수출흥행' KGM, 올해 3분기 연속 흑자 달성

무쏘 EV·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차 출시…11년 만 최대 실적

KG 모빌리티(KGM)는 "무쏘 EV, 토레스하이 브리드 등 세계 시장 신차 확대를 통해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신차 출시를 통해 수출 물량이 늘고 수익성이 개 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3분기와 누계 매출은 각각 1조 1889억원 과 3조 1321억원으로 KGM 역대 최대 분기·3분 기 누계 매출 기록이다.

3분기 판매량은 2만 9116대로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2만 9326대) 이 후 6분기 만에 분기 최대 판매량을 돌파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5.3% 증가했다. 3분기 누계

수출은 2014년(5만 6733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차종별로 무쏘 EV가 지난 9월 국내 시장 누계 판매 6311대로 올해 연간 목표(6000대)를 조기에 돌파 했다. 또 무쏘 EV를 포함한 무쏘 스포츠&칸 등 KGM 픽업트럭의 올해 9월까지 누계 판매는 1 만 2679대로 국내 픽업 판매(1만 9683대)의 64.4%를 차지했다.

KGM은 지난 9월 세계 출시를 시작한 무쏘 EV 와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국가별 출시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면 판매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테슬라 인기에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치 갱신

23조 7956억원·13.3% 증가 자동차・자동차용품 136%↑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테슬라 효과에 힘입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온라 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 액은 23조 795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7993억원(13.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최대치로, 지난 7월(23조 1427억원) 처음으로 23조원 선을 돌파한 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로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이 136.4% 상승했고,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형 모델 판매 및 인도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분석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 팔렸는데, 8~10 월 3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아름다운 동생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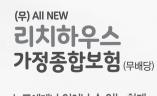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림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첩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버 들 지 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빚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생서광주농협